

『총, 균, 쇠』, 『사피엔스』로 바라본 민족 개념 형성의 성패

- 이탈리아와 유고슬라비아의 통일 사례 분석 -

사학과 202421543 이주학

목차

I. 들어가며

II. 민족에 대한 총균쇠, 사피엔스의 관점

- 총균쇠의 '지배'와 민족
- 사피엔스의 '질서'와 민족

III. 이탈리아 역사와 이탈리아 민족

- 이탈리아인들의 역사
- 총균쇠, 사피엔스에 따른 이탈리아 민족 비교 분석
- 이탈리아의 성공 원인

IV. 유고슬라비아 역사와 유고슬라비아 민족

- 유고슬라비아인들의 역사
- 총균쇠, 사피엔스에 따른 유고슬라비아 민족 비교 분석
- 유고슬라비아의 실패 원인

V. 나가면서

참고문헌

I. 들어가며

21세기 현대는 세계화의 시대이다. 교통수단의 발달과 함께 발돋움한 세계화로 국가 간 교류는 급격히 증가했고, 인종과 문화의 융합은 과거에 달리 민족과 민족국가에 대한 현대인들의 인식을 열어지게 만들었다. 이러한 세계화 추세에 힘입어 2024년부터 한국은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중이 5%를 넘는 다문화 사회에 안착할 것으로 보인다.¹⁾ 세계 곳곳에서 고전적 의미의 민족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현대에도 여전히 세계인들에게 민족은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 오늘날의 대표적인 분쟁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은 세력 균형 구석에 슬라브 러시아인의 범위와 그들의 영토를 두고 벌어지고 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도 유대와 팔레스타인 민족 간 종교를 포함

1) 김대훈, 최해련, <한국, 내년부터 '다인종 국가'>, 《한국경제》, 2023.10.27.,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2721681>(2024.6.20. 접속).

하는 민족 갈등의 결과이다. 이외에도 현대 분쟁의 상당수가 민족 갈등의 양상을 띤다.

그렇다면 민족이란 무엇인가?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민족이란 언어, 문화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형성된 사회 집단이다. 즉 민족이란 후천적 성질에 기인하여 정치적 개념의 국민과 생물학적 개념의 종족 사이에 위치하는 중립적인 개념이다.²⁾

변화하는 현대의 민족 개념과 신냉전의 새로운 민족 갈등은 우리에게 미래의 민족 개념과 분쟁이 어떤 양상으로 변화할지 의문을 던진다. 더불어 코앞으로 다가온 다민족 국가라는 미래 변화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고민하게 만든다.

본 글에서는 민족 관념과 민족 갈등을 책과 사례를 통해 알아봄으로써 미래 민족 갈등과 한반도의 민족 통일에 대한 교훈과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간 문명의 발전에 대해 고찰한 ‘총, 군, 쇠(이하 총, 군, 쇠 혹은 총군쇠)’와 ‘사피엔스’를 통해 민족이 형성되는 2가지 방식을 찾았다. 이어 그 방식들을 활용해 이탈리아와 유고슬라비아(이하 유고슬라비아 혹은 유고)의 민족 형성 사례를 살펴보고, 민족과 국가의 통일 성패 원인을 파악해 보았다.

II. 민족에 대한 총군쇠, 사피엔스의 관점

<표 1> 총군쇠와 사피엔스의 ‘민족’

| 구분 | 총, 군, 쇠 | 사피엔스 |
|-------|----------------|------------------|
| 범위 | 공동체 구성원 전체 | 공동체 구성원 전체 |
| 만든 이 | 지도자(도둑 정치가) | 지도자(피라미드 끝에 선 자) |
| 활용 목적 | 정권 유지, 지지 확보 | 공동체 구성원 협력 |
| 형성 과정 | 이데올로기 구성 및 제도화 | 상상의 질서 구축 및 교육 |

1. 총군쇠의 ‘지배’와 민족

총군쇠는 지역의 기후 차이에 따른 작물화, 가축화의 차이와 그로 인한 인류 문명 사이의 간극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문화적 개념인 ‘민족’은 식량 생산의 차이로 인한 인류 문명 간의 차이점 중 하나로 해석될 수 있다. 민족 개념을 구성하고 활용한 것은 지도자이지만, 민족을 구분하는 요소는 궁극적으로 지형적 차이라는 것이다.

민족은 인류 사회 형성과 문화의 공유에서 출발한다. 인류가 집약적으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인간 사회는 무리에서 국가로 점차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식량 생산량이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증가하면서 모든 구성원이 소비하고도 남는 잉여 식량이 등장했다. 이는 농업이 아닌 분야의 전문가 등장과 사회적 계층화를 낳았다. 사회가 복잡해지는 과정에서 등장한 지도자들은 사회의 복잡성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친족 관계에서 무관한 많은 사람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문제에 직면했다. 즉, 지도층으로서의 중앙 집권적 권력과 그를 성공적으로 세습하는 것이 중요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초기 인류 사회의 무리와 부족의 지도자들은 이를 위해 초자연적 신앙을 ‘구성’했다. 하지만 초자연적 신앙은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지 못했다. 초자연적 신앙은

2) 이대희, 「민족의 개념: 국민과 종족 사이」, 『21세기정치학회보』 25(3), 21세기정치학회, 2015, 56쪽.

점차 제도화되고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면서 도둑 정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종교와 이데올로기로 발전했다.³⁾ 사회 구성원을 아우르고 그들이 공유하는 이데올로기는 점차 발전하여 문화라는 집합체를 구성했고, 지도자는 문화를 공유하는 이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한 것이다.

그렇다면 민족이 19세기에서야 주목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총균쇠의 관점에서 민족은 도둑 정치가가 정권 정당화를 위해 구성한 이데올로기다. 유럽의 종교는 중세, 초기 근대에 부패, 종교 개혁, 과학혁명이라는 전환점을 맞았다. 한편으로는 군주가 영주를 통제하고, 문화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졌다. 통치 수단인 종교가 약화와 중앙집권화로 인한 강력한 수단의 필요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등장을 낳았다. 19세기 전후 시민혁명으로 인한 국가체제, 충성 대상 변화 과정에서 민족 개념이 정형화되어 등장한 것이다.

2. 사피엔스의 ‘질서’와 민족

사피엔스는 농업혁명, 과학혁명 중심으로 서술되던 기존 인류사 이전의 인지혁명을 주목한다. 인간의 상상력은 돈, 종교, 국가, 문화, 그리고 ‘민족’의 가상의 실재를 만들었다. 상상의 개념인 민족은 내집단의 동질성이나 외집단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공동체를 통합시켰다.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는 신체적 한계로 그리 월등한 종이 아니다. 하지만 상상력은 인간에게 상상의 실재를 믿게 하고, 더 큰 단위의 인류 사회가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인지혁명에 이은 농업혁명은 잉여 생산물을 통해 집단 구성원 수 증가와 사회적 분업, 계층화를 낳았다. 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큰 집단, 도시, 국가의 출현은 상상력을 통한 인류의 협력본능만으로는 부족했다. “사회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서 있는 자”들은 많은 사람을 통치하기 위해서 상상의 질서를 형성했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상상의 질서를 사실로 꾸미고 사람들에게 철저히 교육함으로써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했다. 이 질서는 현실, 개인의 욕망, 인간 집단과 상호작용하면서 이를 더욱 진실처럼 만든다. 그러나 중세까지 상상의 질서로써 큰 영향력을 발휘한 종교의 영향력은 지난 3백여 년간 약화하였다. 지도자들은 새로운 질서로 문화적 공동체의 민족을 제시했고, 이는 특정 인종이 더 우수하다는 진화론적 인본주의로까지 발전했다. 진화론적 인본주의는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지배와 나치의 인종 정책 등 특정 인종이 더 우수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⁴⁾ 일부 문화를 공통으로 향유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집단인 민족의 차별성을 상상의 질서는 무시한다고 볼 수 있다.

III. 이탈리아 역사와 이탈리아 민족

1. 이탈리아인들의 역사

“이탈리아의 역사는 한마디로 내분과 분열로 점철된 역사이다”.⁵⁾ 이 말처럼 이탈리아는 19세기 중반 통일 전까지 로마 시기를 제외하고는 통일된 적 없는, 하나보다 분열되었던 역사가 더 긴 국가이다. 로마의 붕괴 이래 이탈리아반도에는 하나라고 부르기 어려운 문화적, 언어적 차이를 가진 국가들이 난립했다. 중세에는 코무네가 발전하면서 개별 도시 단위로 독립적인

3) 재레드 다이아몬드, 『총, 군, 쇠』, 김진준 역, 문학사상사, 1998, 387-434쪽.

4)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조현욱 역, 김영사, 2015, 62-72, 165-189, 335-347쪽.

5) 윤종태, 허유희, 『이탈리아, 이탈리아인』,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1, 54쪽.

정치 단위와 정체성이 형성되기까지 했다. 로마 해체와 이탈리아 통일 사이의 이탈리아반도는 한 국가와 민족이 아닌, 부분적으로 유사성을 지닌 개별 국가들이 위치했던 곳이었다.

이탈리아는 1789년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자코뱅파가 로마의 영광과 통일을 연관을 지었지만, 이는 프랑스의 이탈리아 침공으로 좌절되었다. 나폴레옹 점령하에서, 이탈리아 서북부에 한정되었지만, 이탈리아라는 이름의 국가가 존속했다. 이 기간 프랑스령 이탈리아에서 나뉘어 있던 과거의 영토, 행정, 표준 등의 통일이 이루어졌다. 나폴레옹의 몰락 이후 자유주의의 카르보나리당을 시작으로 마치니주의, 온건 자유주의, 급진 자유주의파 등이 통일 논의에 등장했다. 또한 몇몇 도시에서 프랑스령 이탈리아 군인 출신이 주도한 1820, 21년 혁명, 다수 지역에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1831, 33년 혁명의 실패에도 이탈리아반도의 통일 열망은 지속해서 확산하고 있었다. 1848년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받은 사르데냐 왕국이 오스트리아에 맞서 1차 이탈리아 독립 전쟁을 전개하였지만, 병력의 열세에 밀려 패배하며 실패하였다. 그러나 이후 사르데냐 왕국은 프랑스 지원 아래 1859년 2차 독립 전쟁 승전, 1860년 중부 이탈리아 투표 합병, 1866, 70년 베네치아 지방과 교황령을 합병하며 이탈리아 통일이 완수된다.⁶⁾

2. 총균쇠, 사피엔스에 따른 이탈리아 민족 비교 분석

<표 2> 이탈리아 ‘민족’ 사례

| 구분 | 총, 균, 쇠 | 사피엔스 |
|-------|-----------------|---------------------|
| 범위 | 이탈리아 문화 향유자 | 이탈리아 문화 향유자 |
| 만든 이 | 프랑스 점령자(나폴레옹 등) | 자유주의 영향받은 사르데냐 국왕 |
| 활용 목적 | 이탈리아 점령 용이 | 이탈리아 문화권 통합 |
| 형성 과정 | 제도화(괴뢰국 분리) | 질서 구축(자유주의), 교육(왕정) |

총균쇠는 도둑 정치가가 정권 유지와 지지 확보를 위해 민족을 구성했다고 주장한다. 최초의 근대적 이탈리아 국가인 프랑스령 ‘이탈리아 공화국, 왕국’은 나폴레옹 프랑스가 이탈리아 원정으로 획득한 북부 이탈리아 영토 일부를 괴뢰국으로 제도화하면서 등장했다. 이 시기 프랑스는 이탈리아를 계속해서 직할령으로 두려 했지만, 통치상의 어려움으로 베네치아 등 이탈리아반도 동북부를 괴뢰국으로 해방하게 된다. 또한 프랑스는 국가원수 나폴레옹, 부왕 드보와 르네를 제외한 프랑스령 이탈리아의 관료와 군인 대다수를 현지 사람들로 구성했고, 그로써 이탈리아 민족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처럼 이탈리아 민족은 아이러니하게도 프랑스 도둑 정치가의 원활한 지배와 권력 유지를 위해 등장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사피엔스에서 상상의 질서를 만든 이는 사회 공동체 구성원 간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자다. 나폴레옹 프랑스가 무너진 후 이탈리아 통일을 주도한 사르데냐 왕국을 포함해 복위한 이탈리아의 왕족들은 통일보다는 구질서 복귀에 집중하며 빈 체제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그러나 프랑스의 국민국가 사상과 통합에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자들은 이탈리아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을 공화정 아래 하나로 묶고자 했다. 그들에게는 협력해야 할 사회 공동체의 범위가 각각의 이탈리아 왕국 신민이 아니라 이탈리아 문화권 전체였던 것이다. 그러나 외세의 간섭에 맞서는 과정에서 왕정주의자가 주도권을 갖게 되었고, 그들은 자유주의자들의 사상을 빌려와 민족을 형성하고 이탈리아 통일을 완수할 수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6) 루이지 살바토렐리, 『이탈리아 민족부흥운동사』, 광차섭 역, 한길사, 1997, 89-249쪽.

3. 이탈리아의 성공 원인

이탈리아는 통일 과정에서 남북의 경제, 인종 차이와 지역 간 문화적 차별성을 극복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민족을 구성하는 데 성공했다. 총균쇠의 관점에서 원활한 통치를 위해 이탈리아 민족을 구성했던 프랑스의 정책은 이탈리아 통일에 불을 붙였고, 통일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정당성이 부여되었다. 사피엔스의 시각에서도 이탈리아는 상상의 질서가 분열된 현실과 과거의 영광을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구축되었다. 이탈리아인들의 의식은 프랑스 혁명 이래로 점진적으로 통일로 향해 갔으며, 통일 열망이 폭발한 통일 전쟁기에는 상당수가 그런 의식을 공유했을 것이다.

이탈리아의 성공은 시기에 따른 프랑스, 프로이센의 지원 덕분이라는 말도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 민족의 성공과 관련된 통일 외적인 면과는 별개로, 민족에 대한 이탈리아인들의 주체적인 인식 변화는 성공의 근본 기틀이 되었다. 또한 가톨릭 국가라는 가장 큰 동질성과, 왕당파와 자유주의자를 가리지 않는 통일 지향은 이탈리아가 성공하는 데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IV. 유고슬라비아 역사와 유고슬라비아 민족

1. 유고슬라비아인들의 역사

유고슬라비아는 종족적으로 남슬라브권에 속한다. 유고슬라비아(Jugoslavija)라는 말 자체도 남쪽을 뜻하는 유고(Jug)와 슬라브인들의 땅이라는 슬라비아(Slavija)의 합성어이기도 하다. 유고슬라비아는 395년 동서로 나뉜 로마 제국과 동서방 교회의 경계였다. 이에 따라 6~7세기에 남하한 슬라브인들은 정착 지역에 따라 나뉘 수밖에 없었다. 중세, 근대에는 비잔티움, 불가리아, 오스만 등이 차례로 유고 지역을 직간접으로 통치했다. 19세기 오스만 제국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하자, 유고에도 민족국가가 다시 등장할 수 있었다. 유고슬라비아 형성 이전에는 토착민들이 주도하여 그 지역을 단일 통치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1차 세계 대전의 종전 이후 세르비아 주도의 남슬라브 통합 왕국인 '세르비아-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왕국'이 수립됐다. 그러나 남슬라브 통합 왕국을 이은 유고 왕국의 정권은 대세르비아주의를 주장한 세르비아 왕정이 독자적으로 장악했다.⁷⁾ 그로 인해 남슬라브 통합이 불완전하게 유지되던 가운데 1941년 4월 6일 독일의 침공이 시작했고, 수 주 만에 유고슬라비아 정부는 항복하고 체트니크, 우스타샤 등 극단 민족주의가 성행했다. 2차 대전 후 유고의 실권을 장악한 '티토'는 과거의 소수민족이 아닌 '유고슬라비아인'이라는 새로운 틀을 만들었다. 또한 거의 같은 언어임에도 수백 년간 다른 언어로 받아들여진 세르비아어와 크로아티아어 통합에도 공을 들였다. 티토 생전의 민족주의 운동은 유고슬라비아 근간을 흔들 만큼 큰 영향을 가지지 못했다. 그러나 1980년 티토 사후 정권을 계승한 세르비아 출신의 밀로셰비치는 1987년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세르비아 민족주의를 주장했다.⁸⁾ 세르비아 중심 정책은 몇 년 후인 1991년, 그에 반발한 소수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유고슬라비아는 내전에 접어들고 말았다.

7) 「민족주의 관점에서 본 양차대전사이의 유고슬라비아 : 정치적 민족주의 vs 문화적 민족주의」, 『동유럽발칸연구』 38(4),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2014, 212-214.

8) 제스퍼 리들리, 『티토: 위대한 지도자의 초상』, 유경찬 역, 을유문화사, 2003, 쪽.

2. 총균쇠, 사피엔스에 따른 유고슬라비아 민족 비교 분석

<표 2> 유고슬라비아 ‘민족’ 사례

| 구분 | 총, 균, 쇠 | 사피엔스 |
|-------|------------------|-----------|
| 범위 | 유고 문화 향유자 | 유고 문화 향유자 |
| 만든 이 | 티토 | 티토 |
| 활용 목적 | 정권 안정, 공산주의 일당독재 | 유고 사회 통합 |
| 형성 과정 | 법적 제도화 | 학교 교육 |

유고 민족은 남슬라브 민족 국가를 표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세르비아주의에 불과했던 유고 왕국과, 소수민족주의를 뿌리뽑고 유고인이라는 신개념을 제시한 유고 공화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유고 왕국은 민족 통합 시도가 아니었고, 2차 대전으로 결과가 명확하지 않기에 본 글에서는 유고 공화국 사례를 살펴보았다. 유고인은 유고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에 가깝지만, 남슬라브 종족에 기반한 개념이기에 아래에서는 이를 민족으로 전제했다.

총균쇠의 입장에서 ‘유고인’을 제시한 티토의 목적은 본인의 독재 체제 안정과 유고 공산당의 일당독재다. 티토는 2차 대전 종전 후 유고슬라비아의 정권 장악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국내외에 체크니트, 우스타샤 등 전쟁범죄자를 포함하는 분리 독립 민족주의자, 내정에 깊게 간섭하려는 스탈린 등 소련 세력, 유고 공산당 내부의 반대파와 같은 문제가 남아 있었다. 이를 위해 티토는 유고인이라는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분리주의자 반대파 진압 명분, 외세 압력에 맞서 정권 이미지 쇄신, 반대파 시선 분산을 이루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민족주의 운동에 대한 세르비아 출신 각료들의 강경 진압 주장에도 그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강경 진압이 자신의 정권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을 것이다.

사피엔스는 유고인 형성 목적을 유고 사회 통합임을 제시한다. 티토는 전후 극심한 민족주의로 고통받은 유고슬라비아를 사회주의 이념에 기반하여 통합하고자 시도했다. 2차 대전 ‘반혁명’ 부역자들에게 시한을 늘려가면서까지 전향을 권유했다. 또한 중앙 정부 차원에서 포로로 잡힌 부역자들에게 중대 범죄 사항이 없다면 사면해 주었고, 중대 범죄자도 군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지시하였다. 민족주의 부역자들에게 보여준 관용에 이은 유고인 개념은 미래에는 과거와 같은 민족주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티토는 유고인 개념을 학교에서 교육하도록 하였고, 자기 자신도 유고슬라비아인이라고 천명했다.

3. 유고슬라비아의 실패 원인

티토의 갖은 노력에도 불과하고, 유고슬라비아는 티토 사후 민족주의 감정이 격해지며 결국 분열의 길로 접어들었다. 도둑 정치가의 지배 정당화를 중요시하는 총균쇠의 이데올로기는 티토의 유고인 개념이 본인의 정권을 공고하게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을지 몰라도, 그것이 공산당의 독재를 정당화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사피엔스 주장에서는 유고인을 통한 유고 사회의 통합이 지금까지도 유고인 정체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완전히 효과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티토 사후 밀로세비치 등 유고 지도부의 민족주의화로 인해 사회 전체가 상상의 질서를 믿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다.

V. 나가면서

이제까지 ‘총균쇠’, ‘사피엔스’의 관점에서 민족을 바라보는 방식과, 그를 바탕으로 이탈리아와 유고의 사례를 바라보았다. 민족이라는 개념에 대해 두 도서 모두 대상 범위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같았다. 그러나 민족을 만든 이, 형성 목적과 과정에서 상이한 차이를 보였다.

이탈리아와 유고 두 국가는 모두 통일 시점에서 지역별로 종족, 문화, 빈부 등이 큰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민족 개념의 형성과 통일에 성공했고, 유고는 그렇지 못했다. 두 지역은 크게 문화적 유사 정도, 정책 유지 유무, 민족 형성을 위한 기간의 차이가 존재했고, 이는 결국 두 국가의 통일 성패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탈리아와 유고가 한반도와 한민족에 주는 시사점은 분명하다.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는 그 기간이 길어지며 문화적 차이점이 날로 벌어지고 있다. 또한 북한은 2023년 말과 2024년 초에 걸쳐 남한과의 동족 관계를 청산하며 평화 통일 정책을 폐기했다. 이러한 격차는 향후 통일 후 북한과의 동질성 회복이나 통일 그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다. 이는 한민족 개념에 입각한 한국의 통일 방식에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통일의 장기화는 한민족의 민족적 동질성 상실과 통일의 영구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세계는 세계화로 인한 다양화와 함께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문화적 동질성의 고전적 민족 대신, 한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 모두를 아우르는 국민의 개념을 더 중시하고 있다. 훗날 민족이 세계화로 인한 문화의 획일화로 인해 큰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의 민족이 된 이탈리아처럼 변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다민족국가로 진입할 우리 사회 속 외국인 문제와 한민족, 대한민국 국민의 미래에 대해 고민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향후 실제 변화에서 자기 행동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윤종태, 허유희, 『이탈리아, 이탈리아인』,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1.

윤세병, 「구 유고슬라비아연방 지역의 역사대화」, 『역사교육논집』 67, 역사교육학회, 2018.

이대희, 「민족의 개념: 국민과 종족 사이」, 『21세기정치학회보』 25(3), 21세기정치학회, 2015.

김철민, 「민족주의 관점에서 본 양차대전사이의 유고슬라비아 : 정치적 민족주의 vs 문화적 민족주의」, 『동유럽발칸연구』 38(4),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2014.

루이지 살바토렐리, 『이탈리아 민족부흥운동사』, 곽차섭 역, 한길사, 1997.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조현욱 역, 김영사, 2015.

재레드 다이아몬드, 『총, 군, 쇠』, 김진준 역, 문학사상사, 1998.

재스퍼 리들리, 『티토: 위대한 지도자의 초상』, 유경찬 역, 을유문화사, 2003.

김대훈, 최해련, 〈한국, 내년부터 '다인종 국가'〉, 《한국경제》, 2023.10.27.,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2721681>(2024.6.20. 접속).